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 Q** 해외법인 B가 당사로 직접 발주를하고, 대금 또한 해외법인 B로부터 수금하는 거래이나, B 법인으로 직수출 하지 않고, 당사의 재화를 국내업체 A에 납품하여 A업체가 B법인으로 수출하였습니다.(재화의 흐름 : 당사 > A업체 > B법인)
- 이 과정에서 A업체와 당사와의 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없으며, 납품에 대한 증빙만 구비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해외법인 B와의 결제대금이 US달러로 거래되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 시 해외법인 B와의 발주서와 외화입금 증명서 제출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해당 거래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 누락 건으로 당월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귀사가 직수출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외법인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수출물품을 국내의 A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A에게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업체 A가 B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영세율입증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는 거래시점의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거래를 올해에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런 거래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조건에 따른 매출액 인식

Q

당사는 기존에는 수출제품에 대해 선적일자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근래 회계감사 이슈 사항으로 수출 무역조건에서 FCA 조건(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운송 차량에 상차까지)인 경우 상차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시(당사는 매월 조기환급 신고) 선적일 환율과 상차일의 환율 차이는 매출액/매출채권 가감하여 기표하여 처리하면 될런지요?

A

수익인식은 회계기준대로 하여야 하므로 상차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은 선적일기준이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 신고를 위한 신고서상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수익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서식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법 따른 선적일환율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